

私の目に映った和歌山、そして夕焼け

JEONG Jeongwon

システム工学部 交換留学生 韓国

日本に到着してからの最初の数日間は、まるで彷徨うような日々だった。見渡す限り、目に映る風景はどれも馴染みがなく、言葉にもまだ慣れていない。自炊生活も初めてで、生活用品を買った後で「やっぱり必要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と思う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顧みると、日本に来て最初の一週間は苦難の連続だった。

やすらぎの中で、人の心は癒される。こうして人間は、何度でも最初からやり直すことができる。最も代表的な方法が宗教である。だからといって、私が宗教で語られる神にすが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ダーウィンの進化論がこの世界から神の存在を拭い去って以降、神というものは、ただ苦悩や不安から逃れるための避難所に過ぎなくなってしまったからだ。

私は普段、夕方の5時から6時ごろに買い物へ出かける。紫外線が苦手というのもあるし、夕方は涼しくて過ごしやすい。そして何より、その時間帯から値引きセールが始まるからだ。

今、私が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家は、南東向きに建てられている。もともと韓国で建築工学を学んでいたこともあり、建物が南向きであることの利点はいくつか知っていた。日当たりが良いとか、湿気がこもりにくいとか、そういったことだ。けれど、正直に言えば、それらの利点が強く実感できるわけではない。技術の発展によって、南向きの家のメリットは、今ではほとんど人工的に補えるようになっている。まして私は、午後にはいつもカーテンを閉めるほど紫外線が好きではないので、南向きの家が特に好きというわけでもなかった。

しかし、長所と短所とは、まるで手のひらを返すように入れ替わるものだ。この家が南東向きということは、玄関は北西を向い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そして、その時間帯には、いつも夕陽が沈んでいく。

太陽の方角は、その土地の緯度や季節によって少しずつ変わる。和歌山の春、太陽はおよそ275度あたりの空へと沈んでいく。先ほども述べたように、私は夕方によく外出する。その時間に玄関を開けると、目の前にはちょうど夕陽が沈む空が広がっているのだ。

「人は誰しも、言葉にできない悩みを一つや二つ抱えて生きているものだ」——そんな言葉を、どこかで聞いたことがある。だからこそ、人は“心の癒し”という名目で何かに向かうことがある。登山をすとか、瞑想をすとか、神を信じるとか。共通しているのは、心の中に何らかの象徴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その象徴を思い浮かべることで、人はもう一度、歩き出す勇気を得るのだ。

私にとってのその象徴は、夕焼けだった。日々の悩みは、夕焼けを見ることで少しずつ薄れてい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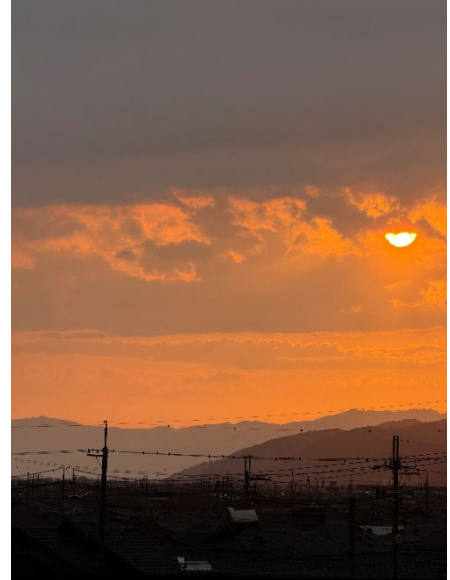
建築を学んでいると、「美しさとは何か」とふと考える瞬間がある。建築もまた、総合芸術のひとつである以上、それは避けがたい問いなのだろう。私自身も、美しさとは何か、

それはどこに宿り、どこから生まれるのかを、幾度となく思い巡らせてきた。そしてある日、夕焼けに染まる空を見上げながら、ふと気づいたのだ。美しさというのは、決して遠くにあるものではない。それは、ただ私の肌をかすめる風のなかにも、夕暮れの光のなかにも、そしてその夕焼けの向こうに広がる灰色の空のなかにも、それぞれの美しさがそっと宿っているのだと。

日本に来る前、韓国で最後に読んだ本は、三島由紀夫の『金閣寺』だった。金閣寺の主人公は、金閣を究極の美として崇め、最後にはそれを燃やし尽くすことで「生きる」という意志を固める。私にとって、その金閣は、夕焼け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いつの間にか、季節は夏になった。金閣が炎に包まれて消えていったように、夏になると太陽の沈む時間や方角が変わってしまい、もう夕方に玄関を開けても、あの夕焼けは見えなくなった。それでも、私は絶望しない。

なぜなら、たとえ夕焼けがもう見えなくなっても、それが私の心に残していった美しさは、すでに私の内に深く染み込んでいるからだ。人間は、何度でも、最初からやり直すことができるのだから。



나에게 비추어진 와카야마, 그리고 노을

정 정원
시스템공학부, 한국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의 처음 며칠 간은 방향의 연속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뿐이고, 언어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난 흔히 종교에서 거론되는 신에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다윈의 진화론이 이 세상에서 신을 지워버린 이후, 신은 그저 고뇌와 불안으로 부터의 도피처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자취하는 곳은 집이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다. 난 건물이 남향일 때의 장점을 몇 개 알고 있었다. 햇빛이 잘 든다 던지, 습기 제거에 용이하다 던지 뭐 그런 거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집이 남향일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나는 오후에 계속 커튼을 치고 살 정도로 자외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남향의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은 언제나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히기 마련이다. 집이 남동향이라는 것은, 현관문은 북서향이라는 뜻이다. 태양의 방위는 지역의 위도, 계절에 따라 살짝씩 달라진다. 와카야마의 봄에 태양은 약 275° 즈음의 하늘로 저물어간다. 오후 5시 반쯤 현관문을 열면, 나는 눈앞에서 노을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은 저마다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마음의 치유라는 명목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일종의 상징을 두는 것이다. 그 상징을 다시 떠올리며, 인간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 나에게 있어 그 상징은 노을이었다.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지, 어디에 깃들여 있으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고민하곤 한다. 그러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몸을 스치는 바람에도, 저녁의 노을에도, 그리고 그 노을의 건너편의 젓빛 하늘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는 걸 느꼈다.

일본에 오기전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읽었다. 금각사의 주인공은 금각사를 궁극의 아름다움으로 여기며 최후에는 금각사를 불태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굳힌다. 나에게도 노을이 그 금각사인가 보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이 됐다. 금각사가 불타 사라졌듯이, 노을은 여름이 되면 지는 시간과 방위가 바뀌기에, 저녁시간에 현관문을 열어도 노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좌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남긴 아름다움은, 이미 내

안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